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 '우기·폭염 대비 안전 점검' 실시

윤 차진형기자 | 승인 2026.07.15 17:26 | 10면

여름철 재해 예방·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위한 안전점검



▲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와 김해양산부산지사는 15일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사업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15일 양산시 소재 화제 배수개선사업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본부장 박찬희)와 김해양산부산지사(지사장 손홍모)는 15일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사업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양산시 소재 화제 배수개선사업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집중호우 대비 신설 배수장 가동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현장 관계자들에게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집중호우에 따른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덧붙여 고용노동부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인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 '체감 온도 33℃ 이상 작업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냉방장치 및 그늘막 설치' 등 이행 여부를 함께 확인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및 김해양산부산지사는 앞으로도 계절별 재해 취약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안전한 사업 추진과 근로자의 생명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차진형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진형기자